



믿으라!



“우리가 경기장에
없었다고 해서 그
승부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와!



당신이 지금 월드컵 경기장에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모두가 월드컵 이야기를 하며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이 당신에게 첫 번째 월드컵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감동은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습니다.

FIFA 월드컵 대회는 1930년 우루과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해외여행이 쉽지 않아 많은 팀이 참가하지는 못했습니다. 월드컵 사상 첫 골은 프랑스가 넣었고 승리는 주최국에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역사입니다. 알다시피 기록된 역사를 의심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역사를 의심하는 일이 흔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없었다고 해서 일어난 사건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에 의해 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15장 4절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고 말합니다. 오래 전에 천국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을 아는 분이 우리가 경청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되돌아보기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되돌아봅시다. 국제축구연맹 (FIFA)이 월드컵 대회를 창설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실이며 입증도 가능합니다. FIFA가 월드컵 대회를 창설했고 지금 우리는 그 대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필수입니다. 오래 전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문제는 세계를 여행했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하지만, 잠깐!”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에 종교적인 사람이 많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생각밖에 없습니다. 혹시 당신 주위에 월드컵 경기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모든 경비를 대줄 테니 같이 가자고 했다면 그 사람은 기꺼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단지 경기를 보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필시 그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아무런 대가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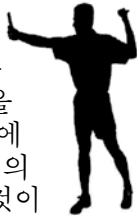
자기 삶을 전혀 희생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안락한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이 아니라 바로 ‘그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천국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천국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믿고 찾는 사람입니다.



내면 살피기

월드컵 경기를 보면 주심들이 주머니에서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를 꺼내곤 합니다. 이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는 규칙을 위반했을 때 제시하는 카드입니다. 카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겠지만 카드는 경기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카드 없이는 경기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FIFA의 월드컵이기 때문에 대개는 FIFA가 경기 규칙을 정합니다. 선수는 당연히 경기 규칙이 지켜야 하며, 규칙을 어긴 선수는 카드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규칙을 따를 때 혼란이 최소화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도 하나님이 규칙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려면 그 주인이시며 천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 이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 힘으로는 온전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아무도 의롭지 않습니다. 평생 의롭게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레드 카드입니다. 월드컵에서 레드 카드의 의미는 경기에서 퇴장 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는 모두 “레드 카드를 받았습시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경기” 에서 퇴장 당해야 마땅합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을 어겨서 - 성경에서 죄라고 부르는 것- 죽을 수밖에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삯은 우리가 일해서 버는 것 혹은 공로로 인해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기에서 퇴장 당하는 것” 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FIFA 월드컵이 사실이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에서 모든 팀은 우승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느 선수에게 묻더라도 이기기 위해 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우승 트로피(선수들이 등을 대고 서서 팔을 올려 황금 공을 들고 있는 모습)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선수는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다 이루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인생 목적은 세상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에서 우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명성을 얻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특별한 점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당신과 나처럼 인간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골로세서 1장 15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세서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계신 동안에 많은 면에서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슬하에서 자랐고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큰 상실감도 느끼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그분의 죄 없는 삶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클라이맥스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누구나 FIFA 트로피를 조국에 가져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가 월드컵에서 탈락했지만 우승 팀이 시상식에서 자기 자리를 당신의 팀에게 주어 당신의 나라가 트로피를 받게 해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인가! 이 승리는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부활한 삶이라는 우승 트로피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눈 이외의 것으로 보기

월드컵에서 우리는 경기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경기장 관람석에 있고 싶어 합니다. 관중들의 함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월드컵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보다 보면 반드시 행사는 끝나고 한 팀이 우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희망찬 삶을 살며 인생 여정을 즐깁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을 잘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죽음을 어떻게 다룰 것입니까? 각 선수들은 월드컵이 끝날 때 우승 트로피를 손에 쥐고자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다면 원하는 대로 부도 얻고 우승도 거머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은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하시느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해결했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 레드 카드들을 기억합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9절~11절) 위에 말한 것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임을 눈치 챘습니까? 물론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이요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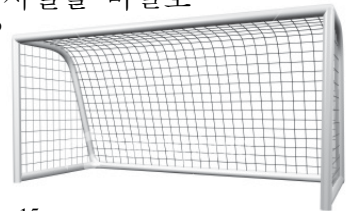
만약 당신이 이처럼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성경은 당신이 “거듭났다” 또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 용어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것으로, 자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17절)



앞을 보기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우승 축제가
몇 주간이나 지속될 것입니다.
우승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축제를 열어야 마땅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축제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믿고
나서도 주위 사람들이 전혀 축하하는 분위기가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바로 천사들이 당신을
위해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세상에 월드컵 우승 사실을 비밀로
할 팀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믿었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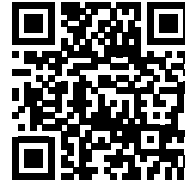
우승팀이 조국으로 돌아가면 환영 인파에 둘러싸일 것입니다. 그들은 월드컵 팬들과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면 당신의 믿음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구원을 축하할 수 있는 장소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등한시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이 책의 마지막 면은 당신이 내용을 채워 써서 이 소책자를 준 사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위의 구절에서와 같은 교회를 찾도록 최대한 돕겠습니다. 당신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도울 것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수없이 도운 경험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책들을 더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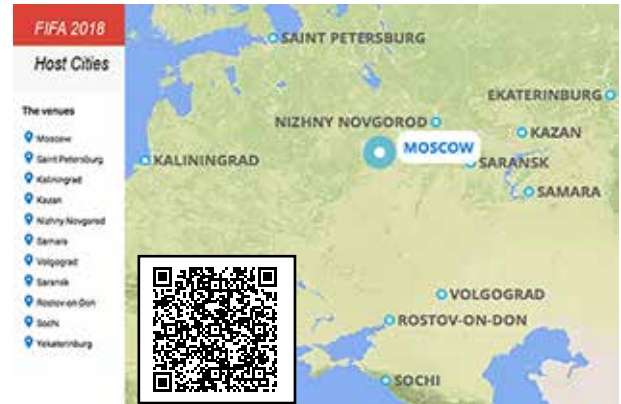


이메일 문의 :
response@SeeAnswers.net

또 다른 옵션은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5c Meridian Pl,
Bella Vista NSW 2153
Australia**

위의 정보를 보내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영적 삶에서 여러분을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웹사이트에서 만나요:

www.SeeAnswers.net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
십시오.

<http://www.mylanguage.net.au>

저자 : M.C. Douglas
Copyright © 2010
by Sow & Harvest Media Society Inc





한국어 / Korean

웹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SeeAnswers.net

Free Copy - Not for Sale